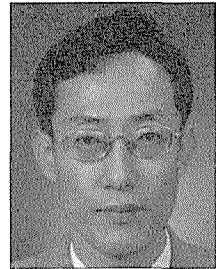


- 미테러 사태를 겪고나서 -

석유위기 대응 기본방향



서덕호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서기관〉

오늘날 석유는 경제생활의 주요 에너지원이자 각종 산업의 기초 원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석유 없는 삶"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작년우리나라 1차 에너지원의 석유 의존도가 52%에 달하고, 원유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석유를 적정가격으로 장기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석유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중 하나라고 하겠다.

세계 석유문제의 본질은 수요처는 전세계에 널리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장량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데 있다. 특히, 중동지역에는 전세계 총 확인 매장량의 65%가 매장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종교적·민족적·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불안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석유위기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0년도 원유도입의 중동 의존도가 77%에 달하고 있어 석유의 안정적 공급이 항상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속에서 최근 미국에서의 동시 다발테러 발생과 연이은 미국의 아프간에 대한 군사공격 개시는 국내 석유수급에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간주되었으며, 정부가 고유가 상황 및 석유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책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국제유가 추이 Dubai유 기준〉

(단위 : \$/B)

테러前	테러後	테러後최고가		美 공격 後			
(9.10)	(9.11)	(9.14)	(10.5)	(10.8)	(10.25)	(10.26)	(10.30)
24.85	26.14	26.83	24.85	19.37	19.28	19.43	19.30

* 10.30일 유가 : 테러前 대비 5.55\$/B, 테러後 最高價 대비 7.53\$/B 하락

1. 최근의 국제유가 동향 및 전망

지난 9월 11일 미국 테러 발생 당시만 해도 세계석유시장의 수급차질 및 유가 급등을 전망하는 시장분위기가 우세하였다. 그러나, 다행히도 미국 테러 발생 직후 국제석유시장이 일시 동요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곧 안정세를 되찾았으며, 10월 8일 미국의 아프간에 대한 군사공격 개시 이후에도 우려하던 유가 급등이나 수급차질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전쟁 발생에도 불구하고 세계경기 침체의 지속으로 앞으로 석유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시장분위기가 더 강하였기 때문인 것으

로 분석된다.

최근 OPEC이 유가 부양을 위해 추가 감산 또는 생산쿼터량 준수를 위한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어 향후 유가는 이 같은 OPEC의 움직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 석유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전쟁이 중동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는 한 유가 급등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 우리나라의 석유소비 및 원유도입 현황

작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던 우리나라의 석유소비 및 원유 도입량이 금년 들어서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석유수급 현황

(단위 : 천배럴)

	1999	2000	2000.1~8	2001.1~8
석유소비	719.658 (7.4)	742.426 (3.2)	492.098 (4.7)	485.128 (△1.4)
원유도입	874.090 (6.7)	893.707 (2.2)	591.842 (3.2)	575.987 (△2.7)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2001.1~8월간 석유소비는 전년동기 대비 1.4%가 감소하였으며, 납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종에서 소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같은 기간 원유 도입량도 전년동기 대비 2.7%가 감소하였으며, 금액기준으로는 유가 하락에 따라 5.5%감소

한 150억불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2000.1~8월에 52.3%를 보였던 우리나라 1차 에너지원의 석유 의존도가 2001.1~8월에는 50.5%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의존도 변화추이

(단위 : %)

	1982	1983	1985	1987	1989	1991	1994	1996	1998	2000
중동의존도	76.0	74.0	57.0	64.1	72.1	73.7	76.6	77.7	75.9	76.9

한편, 우리나라 원유도입의 중동의존도는 1985년 57.0%를 저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0년에는 77%에 육박하였다. IEA는 향후 非 OPEC 산유국의 원유생산이 감소하는 가운데 중동 OPEC 회원국은 3.9%의 급속한 증가세를 보여 2020년에는 전체 산유량의 41%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OPEC 중동산유국에 대한 국제석유시장의 의존도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일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원유도입 중동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적정 수준의 장·단기 도입비율이 유지되도록 하고, 중동지역보다 거리가 먼 남미 및 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 도입되는 원유에 대해서는 중동대비 수송비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원유도입선 다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비상시 대응능력을 신장하기 위하여 2006년까지 정부비축을 60일분으로 확대하여 석유수급의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자 노력중이며, 국제유가 급등시 국내유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유가완충 준비금도 꾸준히 적립해 가고 있다.

3. 석유위기 대응 기본방향

(1) 평시 대책

정부는 평시에도 만일의 석유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다양한 대응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원유 도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도 적극 진출하여 2000년말 현재 23개국에서 53개의 해외 석유·가스 개발사업을 추진중이며,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UAE, 카타르 등 주요 산유국과의 석유분야 유대관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IEA 가입 등을 통해 주요 석유 소비국과의 협력을 통한 석유수급 안정 및 유가 인하를 적극 도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하여 전체 요의 55.3%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과 가정·상업부문과 건물·수송부문의 에너지절약시스템을 강화하는 동시에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2) 비상시 대책

미국에서의 동시다발 테러 발생 이후 정부는 산업자원부, 석유공사, 정유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으로 「석유수급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국제 석유시장 및 유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오고 있으며, 미국의 아프간 군사공격 개시 이후에는 산자부내에 「에너지 대책반」을 구성하여 24시간 근무체제를 가동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만일의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향후 예상되는 전쟁양상과 국내의 석유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3단계 시나리오별 석유위기 대응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우선, 석유위기 발생조짐이 있거나, 유가가 일시적으로 급상승하는 경우에는 위기대응체제 구축, 원유도입 및 석유수급 상황 일일 점검, 석유 공급여력 확충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유가가 크게 상승하고, 이러한 고유가 상황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세 감면, 석유부과금 납부유예, 대수요처 소비 감축, 차량 부제 운행 확대 등 에너지절약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가격안정화에 주력할

것이다.

고유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국내 석유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체 원유도입선 확보노력 강화, 비축유 방출, 수출 통제, 강력한 에너지 절약시책 등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한 가용 정책수단을 총 동원하여 시장혼란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4. 맺는 말

석유위기 극복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와 업계, 연구소 및 학계, 국민들의 공동노력이 집결될 때 비로소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위기시에는 심리적 불안요인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기업과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동요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위기 발생에 대비한 단기 비상대책 보다는 평시에도 석유위기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들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한 에너지 석유의존도 감축, 국내외 유전개발 활성화를 통한 원유 자급개발비율 제고, 석유비축 확대 등의 노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여건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 대내외적 여건이 일시적으로 악화되더라도 석유 및 에너지위기의 발생을 걱정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하기를 기대해 본다. ♣